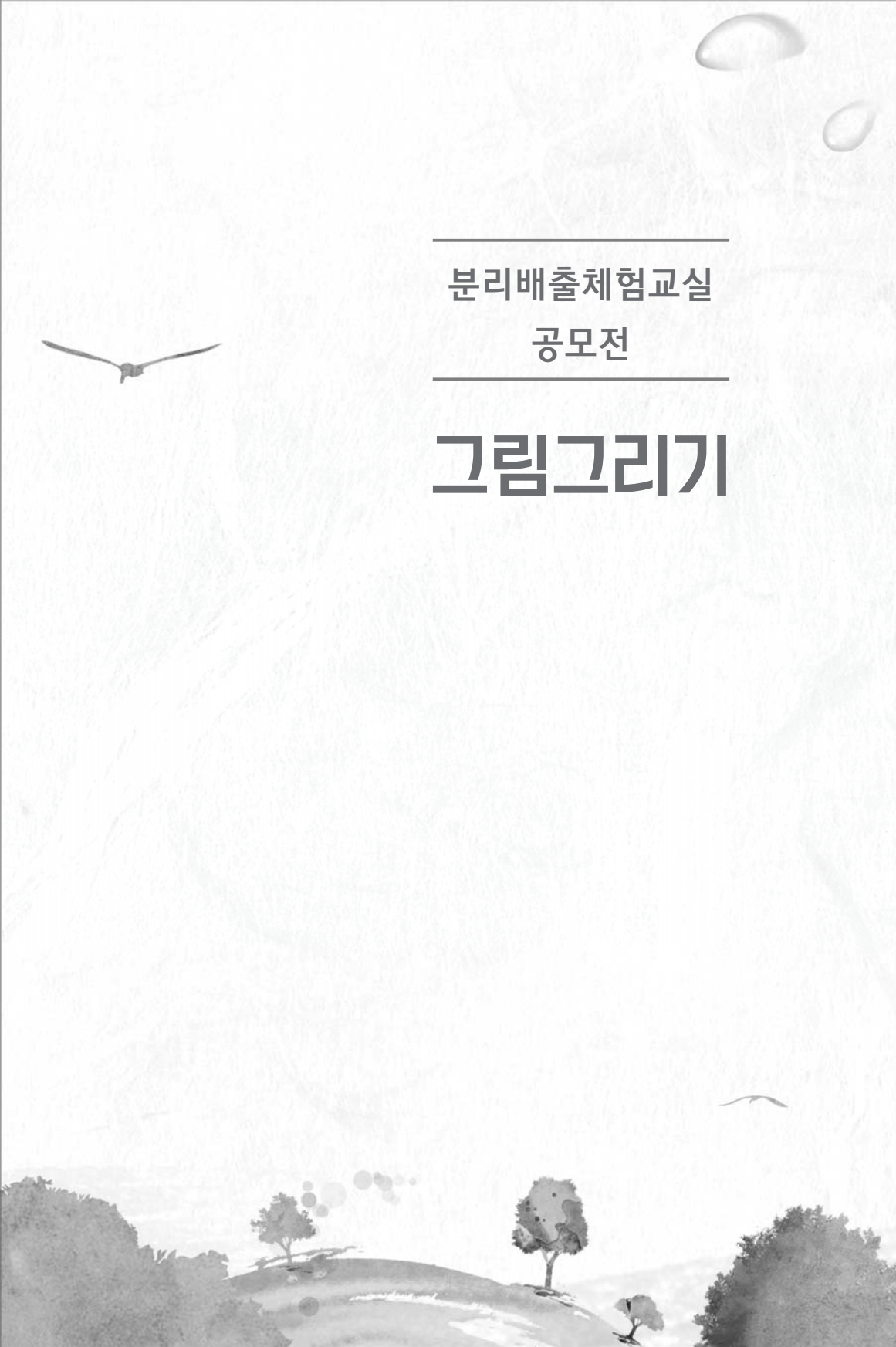


2018년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수상작)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그림그리기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대 상



학 교 명	인천일신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2반
이 름	김지효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최우수상



학 교 명	고양화수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2반
이 름	성한결



학 교 명	고양화수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3반
이 름	이지우



학 교 명	대구초등학교
학 년 반	3학년 2반
이 름	윤이지



학교명	영흥초등학교
학년반	3학년 2반
이름	유진석



학 교 명	영흥초등학교
학 년 반	3학년 2반
이 름	김바하



⋮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

우수상
우수상



학 교 명	고양화수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2반
이 름	박서현



학 교 명	고운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가람반
이 름	박다인



학 교 명	서울누원초등학교
학 년 반	3학년 6반
이 름	심현서



학 교 명	인천일신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1반
이 름	이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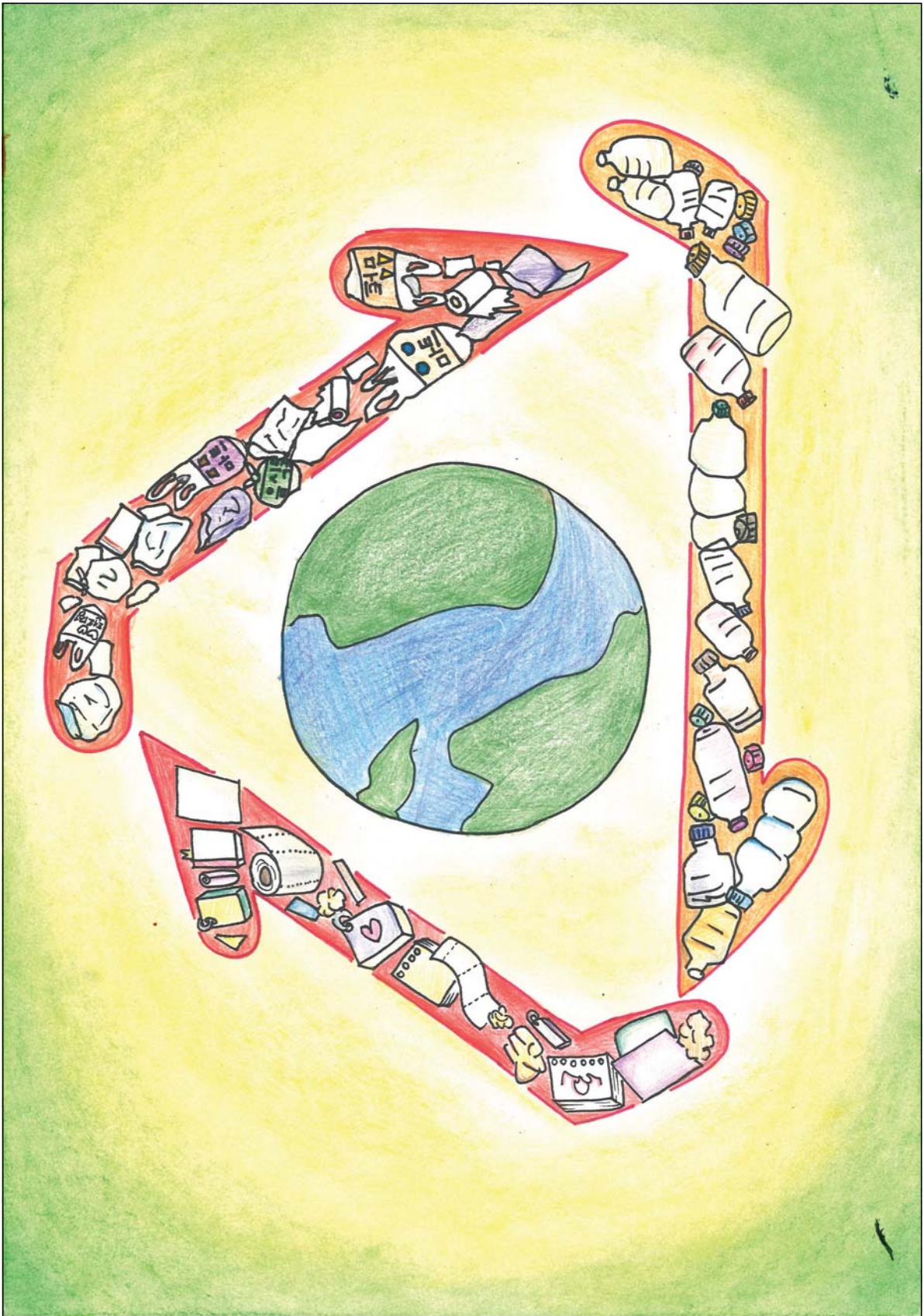
학 교 명	인천일신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2반
이 름	이수연



학 교 명	인천일신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2반
이 름	이현우



학 교 명	참샘초등학교
학 년 반	3학년 5반
이 름	최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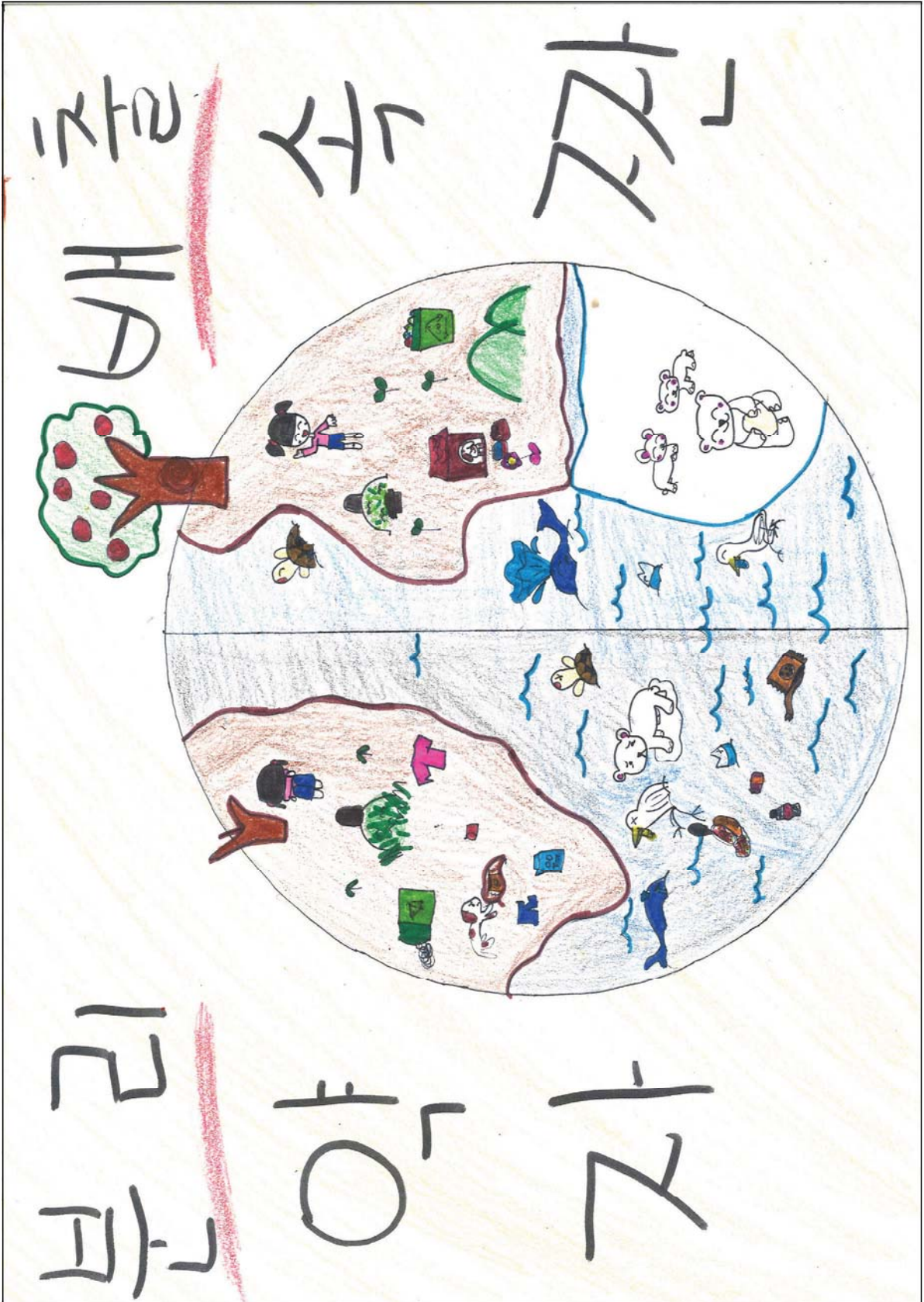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장려상



학교명	각골초등학교
학년반	3학년 3반
이름	백하림



깨끗한 지구

오래된 지구

학 교 명	고운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가람반
이 름	유이강



학 교 명	고운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가람반
이 름	정재윤



학 교 명	보산초등학교
학 년 반	3학년 1반
이 름	허기영



학 교 명	서울누원초등학교
학 년 반	3학년 6반
이 름	김혜민



학 교 명	서울성원초등학교
학 년 반	돌봄교실
이 름	강윤교



학 교 명	서울성원초등학교
학 년 반	돌봄교실
이 름	정지연



학교명	영흥초등학교
학년반	3학년 2반
이름	고민성



학교명	영흥초등학교
학년반	3학년 2반
이름	문서영



학교명	영흥초등학교
학년반	3학년 2반
이름	홍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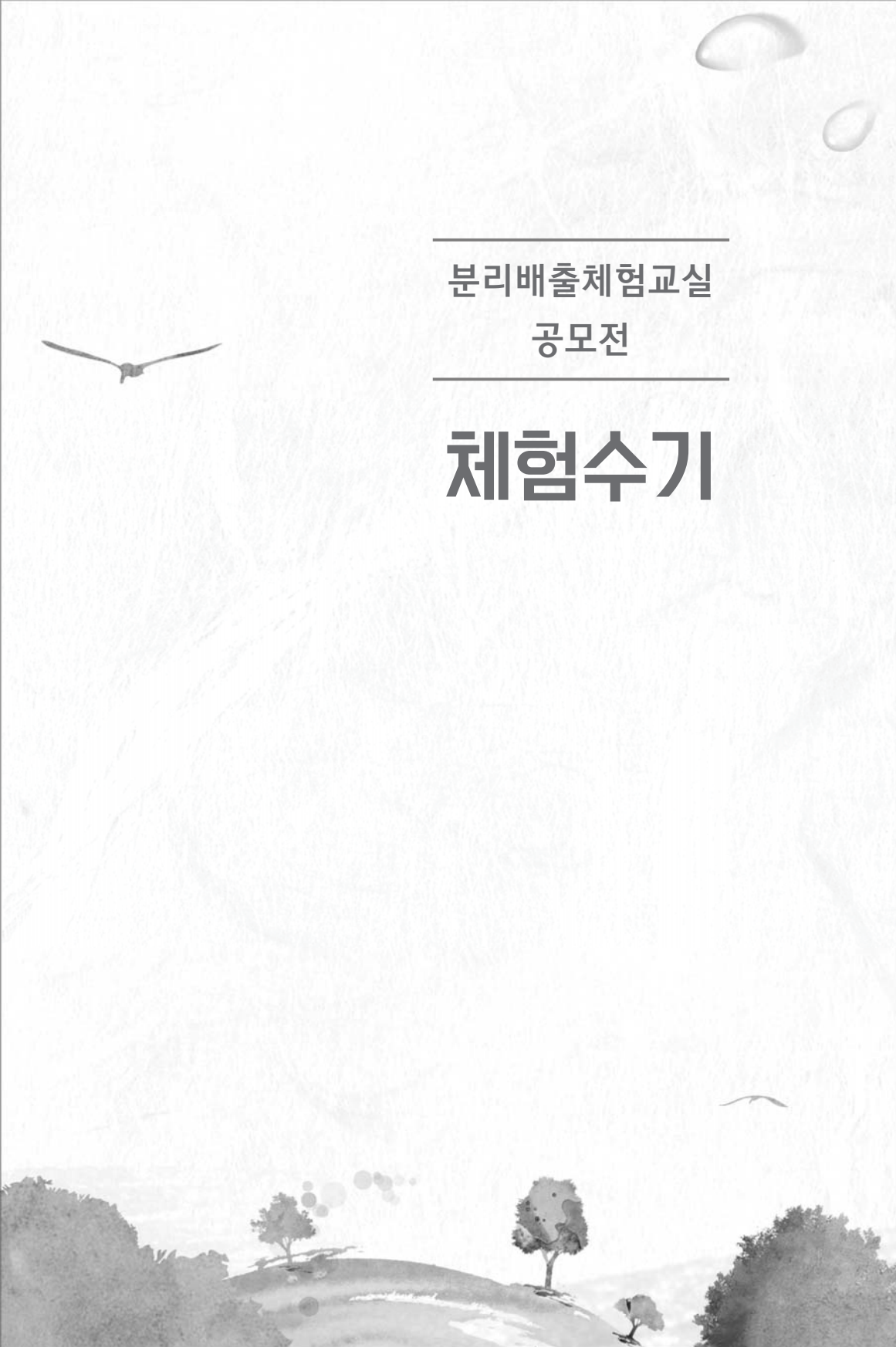


학교명	위례한빛초등학교
학년반	3학년 3반
이름	한소현



학 교 명	인천일신초등학교
학 년 반	2학년 1반
이 름	이세연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체험수기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최우수상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u> 현 </u>)초등학교 (<u> 5 </u>)학년 (<u> 1 </u>)반	이름 : (<u> 연아 </u>)
제 목	<u> 분리배출 체험을 받고 나서... </u>	
<p>어제는 분리배출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선생님께서 오셨다. 사실 자연순환 마크를 보지 않고 고자 비닐봉지를 중량계통에 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 수업을 받어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1인당 1kg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 사실 을 알고 나서 정말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 혼자 만 노력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분리배출의 핵심은 배려다, 행운다, 분리 하라, 섞지 않는다 라는 4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종이라면 모두 종이를 수거하는 분리배출 상자에 넣었는데, 일반 종이와 종이팩과 같은 종이는 다르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안이 바뀌어 든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캔도 항상 그냥 버렸는데, 캔도 압축하여 재활용해야 하고, 부탄가스 캔은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폐지는 새 종이나 노트, 금주거나 고철류는 철근이나 강관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제일 신기했던 건, 폐트병이 무조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 집에서 분리배출을 할 때는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업을 받고 나서 내가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를 잘 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는 분리배출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 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닐봉지 사용량이 어마어마 하게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임마미 심부름으로 롯데마트에 가려면</p>		

에코백을 들고 다녀야겠다. 사실 다짐은 했지만, 내가 잘 실천할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다. 그래도 분리배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배웠으니 잘 할 수 있겠거야고 믿는다. 사실 엄마 아버지는 분리배출을 실천하시긴 하지만, 페트병 나병이나 공작지 스프링을 분리하지 않는신다. 엄마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재사용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엄마는 쓰레기를 왜 버리지 않고 집에 쌓아두냐며, 제발 좀 버려라고 하신다. 분리배출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책에는 「면어마을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 강가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면어가 잘 잡히므로 유명한 이 마을 사람들은 면어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면어를 팔아 생활이 풍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강의두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사들여 과다한 강을 지났습니다.」 「그러자 점점마다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쓰레기가 쌓인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 무렵부터 마을 사람들은 면어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정조를 시작했고, 면어를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읽으니, 한번 오염된 환경은 되살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다. 그렇기에 오염된 지구를 되살리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를 살리려고 노력해야한다.

분리수거 체험을 할 때에는 과자 비닐봉지를 하웠는데, 포장에 과자봉지를 종재 봉투에 넣다보니 서면 전환마를 보지 않고 버려서 분리수거 체험을 할 때 자연환경 마를 찾자 힘들었다. 그래도 봉지를 분리수거함에 넣으니 환경 모를 뿌듯함이 올라왔다.

2 과에는 필통을 만들었다. 이 필통은 분리수거외에 새롭게 탄생한 재생 종이로 만들었다. 한번 썼었던 종이 귀변 필통으로 변신(?)한 것을 보니, 푹푹! 분리수거를 하여서 나무도 살리고 우리 지구를 조금이라도 지킬 것이다.

우리라 작디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살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효현) 초등학교 (5) 학년 (3) 반	이름 : (윤서연)
제 목	분리배출을 공부하는 체험을 하고 나서 ☺	
어제 2018 11월 4일 1~2교시때 학교에 분리배출을 공부하는 체험을 하였다. 먼저 한 것은 컴퓨터로 쓰레기섬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공부하였다. 쓰레기섬을 보았는데 지구에 가장 큰 쓰레기섬은 5개였다. 하지만 커다란 섬으로 5개였지 실제로는 바다 곳곳에 크고 작은 쓰레기섬이 있다고 하였다. 또 영상으로 쓰레기섬 아래를 살펴보았는데 위에는 플라스틱이, 아래에는 비닐들이 뚱뚱 뜨고있었다. 주변에 물고기가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물고기가 쓰레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준 것 같았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나서 진짜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였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나서 진짜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였다. 유리, 철,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등 다양한 쓰레기통과 재활용이 가능해 보이는 쓰레기들이 있었다. 나는 비타500 병을 받았는데 유리병이 들어있는 리벨지는 떼어지지 않아서 그냥 유리병에 버렸는데, 그게 아니었다. 비타500 병의 뚜껑이 철로 되어 있어서 뚜껑을 따 철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금요일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했는데 금요일마다 분리배출을 해서 그 정도는 가볍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큰 요산이었다. 그렇게 분리배출을 하고보니 한 영상을 보았다. 그것은 에벤저스 인피니트 위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하는 분리배출 핵심 4가지였는데 1, 비운다, 2번째, 헹군다, 3번째, 분리한다, 4번째, 섞지 않는다 였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죽이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1번째 버린다는
실천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족은 다 쓴 용기만 버리기 때문이다.
2번째 헝근다는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언니와
나는 물레인을 먹고가서 가공식 헝근지 않고 버린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2번 헝근다만 가공식 잘 지키지 않는
다만 빼고는 대부분 다 지켜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2번
헝근다만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족 모두에게 알려
서 쓰레기는 헝근뒤 분리배출 해야 한다고 알려야
겠다. 그러면 헝근서 버리면 조금씩 조금씩 지구가
쓰레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오늘 집에가서 가족
모두에게 분리배출 4가지를 알려야겠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양 소 영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부평)초등학교 (6)학년 (1)반	이름 : (박서연)
제 목	환경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	
<p>오늘 분리배출과 현재 지구상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았다.</p> <p>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동네에서도 분리배출을 하는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나니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못 카는 줄 알았던 분리배출 방법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회용 도시락용기나 스티로폼 등도 묻어있는 이물질, 잔여물들을 물로 한번 헹구어야 재활용이 가능하단 것을 알았다.</p> <p>카페에서 주는 컵이나 물병, 생수통 등에 붙어있는 종이접테기나 비닐 등도 일일이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런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져서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우거나, 바다에 버려야 한다.</p> <p>땅에 묻으면, 땅에 사는 생물이 살지 못하며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다.</p> <p>불에 태우면, 태울 때 나오는 연기에 발암물질이 녹아 나와서 대기 오염,</p> <p>바다에 버리면 바다에 사는 생물이 살지 못하며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높다.</p> <p>바다에 사는 생물이 행여나 쓰레기를 먹어오 착각해서 먹고, 그 생물을 사람들이 먹으면 결국 자신의 쓰레기는 자신이 먹는 것과 같다.</p> <p>얼마 전, 뉴스에 나와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 바다거북의 고기 뱀배가 끼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죽은 바다새 몸속에 각종 플라스틱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분리배출 하나만 제대로 안버려도 생물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분리배출 할 때는 잘하는 것만을 알았는데 전부 어긋난 방법이었다니 충격적이었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 생물들이 나라고 생각하니 끔찍했다.</p> <p>생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니 이대로만 가다가는 사람의 생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p>		

이렇듯 이번 활동을 통해 현재 지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분리배출을 잘 하고 환경을 지키려 노력
한다면 조금이나마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안전하든 않은 지구의 상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분리배출 방법을 이용하고
과대포장 상품 사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정제 사용 줄이기,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않기를 실천해야겠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모두 노력하자!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하남백)초등학교 (4)학년 (1)반	이름 : (임소정)
제 목	지구를 살리는 마법 분리수거	
<p>오늘 1~2교시에 분리수거를 배웠다. 분리수거를 걸만보고 분리하던 나였지만, 오늘 보고, 느끼고, 체험해보니 신기했다. PPT에 나온 사진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거북이의 콧구멍에 섞은 바닷대가 박혀 바닷새 코피가 나고, 힘줄이 다 전해졌다 말도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을까... 그 거북이의 사진을 보니, 어제 아이스크림 먹고 아무대나 뒹굴던 내가 생각났다. 장당장이라도 다시 주워서 집에 가서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과거였다.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만들고, 말로만 실천한다. 오늘부터 분리수거를 실천해야겠다. 사람들은 말로만, 마음으로 하며, '누군가 하겠지???' '내 알바 아냐?' '오해 알바업니까? 자신이 아픈게 알바가 없나?' 분리수거는 마법이다. 아주 위대한 마법. 사람들은 마법같은 건 없다고 말하지만, 바로 여기엔 슈퍼맨도 못쓰는 닥터 스트레인지도 못쓰는 아주 위대한 마법이자, 자연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분리수거다.</p> <p>우리집앞에도 분리수거통이 있지만 더러워서 쓰지 못한다. 비우고 청소하고 분리하고 버리기???</p> <p>분리수거만 잘하면 환경오염 짬은 누워서 떡먹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반은 종이만 분리수거를 한다.</p>		

테이프가 붙은 종이는 테이프 떼고, 작은 종이는 버리고,
 구겨져 있으면 쪽파해서 버리기. 오늘 분리수거를 하
 면서, 우리반에 '플라스틱 분리수거함', '일반쓰레기 분리
 수거함' 등등 더 많은 분리수거함이 생겨서 쓰레기를 버
 릴 때 일일이 제거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해지시고,
 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환경오염 때문에 아픈 동물도 이상 생겨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수거는 생명을
 살리는 마법이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정은경 정은영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대구효명)초등학교 (4)학년 (1)반	이름 : (하정민)
제 목	지구를 살리고 지켜주는 분리배출	
<p>나는 처음엔 분리배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분리배출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분리배출 체험교실 강의를 듣고 강한 분리배출을 실천하려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반성하고, 쓰레기로 인한 지구의 심각성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p> <p>이렇게 분리배출에 대한 나의 생각을 180°바뀌게 해준 강의 내용은 이러하였다.</p> <p>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섬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섬은 일명 '쓰레기섬'. 이 쓰레기섬에 모여 있는 쓰레기들은 그 면적이 무려 한반도의 15배, 내가 이전에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그곳에 왔다고 생각하니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발리의 바다갯가에는 물속에 물고기는 한마리도 없고 쓰레기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이런 바다갯가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새의 사체에 플라스틱, 비닐 등의 쓰레기들이 가득했다.</p> <p>그 새는 바다위를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를 물고기로 착각하여 먹은 것이다. 내손으로 버린 쓰레기가 한 마리의 새를 죽일 만큼 많다니 내 스스로 죄책감이 들 정도로 놀랐다.</p> <p>하지만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의 양을 줄이며 동시에 버린 쓰레기를 다시 새 물건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분리배출이다. 나는 처음엔 분리배출이 굉장히 거창하고 만일</p>		

그것이 실천하기 쉽다고 하여도 실천하기가 매우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분리배출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였다. 예를 들자면 페트병을 분리수거하는 방법은 첫째,
 페트병의 라벨을 비닐류에 넣는다. 두번째,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다. 세번째, 헹군 페트병을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이다.
 생각보다 분리배출은 어렵지 않았다. 많이 귀찮기도, 번거롭지도 않았다.
 이렇게 간단한 분리배출로 환경도 지키고, 새롭게 재활용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이다. 이렇게 분리배출에 대한 나의 편견을 새롭게 바꾸준
 분리배출 강의를 굉장히 고맙다. 분리배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먼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내 손으로 지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예전의 나처럼 분리배출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한영경 (인)
-------------------------	---------	---------

⋮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

우수상
우수상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u>중앙기독교</u>)초등학교 (<u>4</u>)학년 (<u>단</u>)반	이름 : (<u>박여경</u>)
제 목	<u>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자!</u>	
<p>우리는 추석연휴 전에 올바른 분리배출 수업을 하였다.우리가 몰랐던 쓰레기 인 위협 그리고 분리배출을 잘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 보았다. 처음에는 "쓰레기"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나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쓰레기' 하면 쓰레기섬, 환경오염, 등이 생각 났다. 또한 위험성, 파급력, 분리배출 하면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았다.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해서 필통도 만들었다. 나는 분리배출 체험과정을 통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비닐을 여러장 먹어서 결국 죽은 고래, 또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잔뜩 먹어서 죽은 새, 쓰레기 때문에 결국 기아 된 새끼 거북이 등 이 있다. 또한 자꾸가 얼마나 쓰레기들로 인해 망을 받고 있는지 알 게 되었다. 우리가 하루에 깨끗한 무조건 쓰는 쓰레기들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자꾸가 와파서 자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나는 분리배출 과제를 하고 나서 과실 막바지 때 만든 필통 또한 지 구를 생각해서 재활용 해서 만든 것이라고 들었다. 아주 대단했다. 나도 내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을 것 같은 쓰레기들을 모아서 내가 내일의 재활용 발명품을 만들어서 자꾸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비닐봉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라고 들었다. 비닐봉지에는 아 주 나쁜 성분들만 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다. 비닐봉지를 대신해서 나는 부닐봉지를 쥐들과 함께 마트나 백화점에 갈 때 비닐봉지 대신, 쇼핑백이나, 가방, 혹은 연 조 때는 가방을 가지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의 종류에 맞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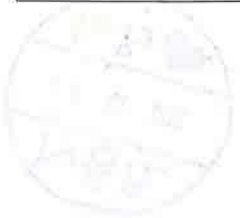


배출하고, 분리를 잘 해야지, 쓰레기도 재사용 할 쓰레기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 분리배출 교실을 하고
 난 후 노트에 기록한 것을 영자에게 보여드렸더니 "비닐봉지를 사용해야
 더욱 노력하게" 라고 말씀하셨다. 부끄했다. 그래도 우리 가족 계속 종이쇼핑
 백이나 풀만한 비닐봉지들, 쓰레기... 등을 우리집 화장실 옆에 있는
 조끼장 창고에 차곡차곡 많이 저장해 두어서 종이쓰레기가 별로 많이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라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어서 종이는
 별로 안 나오지만, 비닐은 아주 많이 나오고, 특히 라면 포장지 매우
 많이 나온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1번 이상 버려야 될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격려했다. 라면이
 이유, 배달음식이 이유라든가 최대한 진짜로 먹고 싶은 때만 먹자
 라고 다짐했고, 반대로 편을 하지 말고 최대한 먹자! 라고 다짐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이번 분리배출 수업을 통해서 쓰레기인 유역,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쓰레기 활용을 해서 유익하고 부끄러
 시간이 되었다. 항상 절약하고 행복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고, 쓰레기를 만
 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였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중앙기독교)초등학교 (4)학년 (단)반	이름 : (진민서)
제 목	넘쳐나는 쓰레기의 대한 나의 다짐!!	
나는 분리배출 체험을 통해 많은 생각과 다짐들이 떠올랐다		
첫번째 다짐은 분리배출 하러 나갈때 꼭 따라나가자이다		
왜냐하면 따라나가면 우리나라에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있고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 알수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다짐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말자이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버리면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냄새도 나서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세번째 다짐은 재활용할수있는 물건들은 재활용해자이다		
이유는 그냥 재활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는 더 많아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수가 있다		
네번째 다짐은 마트를 갈때 자기에 가방을 들고가자이다		
이유는 그러시안면 쓰레기봉투는 점점 많아져서 더 만들어야되는데		
자기 가방을 들고가면 쓰레기봉투를 많이 절약할수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다짐은 되도록이면 배달음식을 먹지말자		
이유는 배달음식을 시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섯번째 다짐은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말자이다		
이유는 쉽게 버리면 돈낭비도 되고 또 그것이 재활용을 할수있는		
물건인데 버리게 되면 아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곱번째 다짐은 조금이라도 쓸수있는 물건들은 끝까지 쓰자이다		
이유는 조금 고장났다고 버리면 다시 사게되고 다시사면 쓰레기가		
나오기때문에 쓸수있는 물건들은 끝까지 쓰는게 좋기 때문이다		



여덟번째 다짐은 텀을 남기지 말고 먹자이다.

이유는 밥이나 반찬을 남기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밥이나 반찬등을 남기지 않는것이 좋다.

아홉번째 다짐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이다.

이유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바다나 땅으로 가는데 바다로 바다생물들이 피해를입어서 쓰레기를 먹기도 하기때문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좋다.

마지막으로 열번째는 종이를 아껴쓰자!이다.

이유는 종이를 아껴쓰지않고 다 쓰면 종이들이 낭비가 된다. 그러면 쓰레기가 더 생겨나서 환경에 안좋아 쓰레기 문제가

점...점...심각해져만 간다. 이렇기때문에 종이나 물건등을 아껴쓰는게 좋다. 나는 이 다짐들을 다~~ 지킬것이다! 그래서

쓰레기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것이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서 조금씩조금씩 줄어들면 좋겠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서울수명)초등학교 (4)학년 (1)반	이름 : (이서빈)
제 목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하고서	
<p>오늘 학교에서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했다. 맨 처음에는 분리배출에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수업을 듣자 생각이 바뀌었다. 선생님께서는 ppt로 분리배출 및 환경 문제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나라는 1년에 1인당 410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하루에 1개 넘는 양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폴란드인 비닐봉지 사용량에 100배를 쓴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 확실히 우리나라가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뭐, 어쩔 수 없지.....'라 생각했다. 다음은 동영상이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바다 영상이었다. 발리의 바다는 깨끗해 안속이 흰하듯 들여다 보인다고 들었기에 기대됐다. 그러나 영상의 내용은 매우 달랐다. 직접 냄새를 맡지 않아도 쿵쿵한 냄새를 풍기는 듯한 갈색의 바다가 보였다. 잠수복이 물 속에 들어가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러 색의 비닐봉지가 빈틈없이 등등 떠다니고 있었다. 쓰레기들은 모두 발리의 관광객들이 버린 것이다. 조금 불편해서 버린 쓰레기들이 보이고 모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쓰레기들이 쌓이고 쌓이면 쓰레기섬이 된다. 쓰레기섬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4배라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렸으면 이런 섬이 생겼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쓰레기섬이 5개나 있다는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바다가 쓰레기섬으로 뒤덮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으~ 그 다음에 나온 사진은 거의 호러영화 수준이었다.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박혀있었다. 사람들은 코에 빨대가 박히면 손으로 빼낼 수 있지만 거북이들은 빼낼 수 없다.</p>		

그 거북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낼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뱀대도 거북이의 크기에 쓸었을 것이다. 그 거북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이 들어 미안해졌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버린 뱀대가 거북이를
지금까지 괴롭혔다니... 한 거북이는 어릴때 물 중간에 박힌 링이 거북
이가 클 때까지 끼어있어 끼어있는 부분만 커지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
었다. 너무 미안했다. 거북이들이 우리 대신 받고 있는 고통이 실감됐다. 쓰
레기들을 잘 분리배출 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더
욱 미안해졌다. 이제부터는 쓰레기들을 불편하다고 막 버리지 않고 알맞
게 분리배출해 지구를 도와야겠다. 나는 에너지수호전사단이다. 지금까지
는 환경보호에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이 수업을 계기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예를 방학 과제를 받은 활동들도 한번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실천해야겠다. 쓰지 않는 물러그들은 모조리 빼고, 난
방이나 냉방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또, 바자회에서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팔아 자원을 보호하겠다. 조금 작아졌지만 개끗한 옷, 쓰
지 않는 가방을 버리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
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페트병과 뱀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머그컵
을 들고 다니겠다. 실제로 어떤 음식점에서 음료수를 살때 머그컵을
가리고 오면 음료수 값을 깎아 준다고 한다. 다음으로, 비닐봉지 대신 에코
백을 들고 다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의 심
각함을 모르는 지인들에게 심각함을 알리고,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말해주겠다. '나 하나도 관심을 가져'라는 생
각 대신 '나 하나라도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가지게 되
으면 좋겠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박원규  (인)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대우 대상)초등학교 (6)학년 (2)반	이름 : (최지인)
제 목	분리수거의 중요성	
<p>지구게 사는 수 많은 사람들은 하루동안 많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합니다. 하지만 작은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느낄 학교 수업시간에 듣고 또 들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게 버린 했습니다. 그 이후 학교에서 분리배출 수업이 있었습니다.</p>		
<p>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분리배출은 언제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현재 지구의 상황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저의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컵의 코에 빨대가 꽂힌 사진이었습니다. 평소 빨대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한번씩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보니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없이 버린 쓰레기가 또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니 문득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u>분리수거</u>의 중요성을 알았고 환경을 위해 봉사하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대단한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비운다, 행운다, 분리한다, 섞지않는다를 잊지않고 꾸준히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p>		
<p>그래서 집에서는 <u>분리수거</u>를 할수있는 각각의 쓰레기통을 따로 준비하여 실천중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항상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고 평소에는 카페에 갈때 보틀을 들고 다닙니다. 덕분에 항상 빨대나 비닐류는 쓰려고 하지않는 습관들도 생겼습니다.</p>		
<p>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똥들과 지구, 우리들을 위해 조금씩 쓰레기를 줄이며 노력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밝게 빛날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p>		

노력은 오아시스 모두함께 지구를 아끼시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권민예

권민예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u>효천</u>)초등학교 (<u>5</u>)학년 (<u>3</u>)반	이름 : (<u>이운서</u>)
제 목	<u>쓰레기가 지구를 상해요.</u>	
<p>나는 분리배출에 대해 배웠다 지구에 쓰레기가 쌓이면 돈이 많이 들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환경오염이 되서 물고기가 죽게 되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지구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근데 분리배출에 대해 배웠더니 쓰레기들이 분류되어 재사용되고, 재활용 되고, 소각되고, 땅에 묻히게 되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때 분류해서 버리는 것을 분리수거 인줄 알았는데 분리배출이었다. 나는 처음엔 내가 분리배출에 대해서 많이 알고있는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것과 다른것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분리배출 핵심 4가지 인 비닐다. 행군다. 분리하다. 섞지 않는다는 다 알고 있었지만 실천을 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배출에 대해서 배운 제기로 앞으로는 계속 분리배출을 잘하자고 많이 느꼈다. 아직도 배운것이 너무 많다. 내가 분리배출에 대해서 잘알지 못했었던것 같다. 나는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먼저 책은 비닐코팅된 걸포지를 떼어서 버리고 스프링 공책은 스프링을 떼서 따로 버리고, 우유팩은 행군후 말려서 버리는것을 아주 잘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생각에는 아직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는것 같아서 더 공부해야 될것 같다. 또 나는 집에 빈병이 있으면 편의점이나 마트로 가서 돈으로 돌려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왜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병을 가지고 가는것이 궁금했다. 아직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병이 깨끗한것만 받으니까 병을 버릴때</p>		

깨끗하게 해서 이물질 없이 버려달라는 뜻 같았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돈을 받지 않고 돈표시가 있는 것만
 냅니다. 왜냐하면 내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우유팩
 이 종이인 줄 알았는데 종이팩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도 계속 분리배출을 할 것인데 나는 옛날부터 하고 있
 기는 했지만 폐트병은 비닐을 찢지 않고 버려서
 내가 분리배출을 잘못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분리배출에 대해 배워길 잘한 것 같다. 알게 된 것도 엄청
 많다. 우리 가족도 많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분리배출을 해서 개
 끗하고 행복한 지구를 꼭! 꼭! 만들 것이다. 화이팅!!!!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안 소 영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20) 조등학교 (5) 학년 (1) 반	이름 : (김예린)
제 목	지구를 바꾸는 안전한 분리배출	
<p>나는 분리배출 체험교실 참가를 통해 종이와 종이를 다른 분류에 해야하는 것을 알았다. 또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분리하기만 그냥 막 버리면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 이웃수거함에 넣 기전에는 항상 빨아서 넣어야 하는 것도 알았다. 또 예전에 뒤얽힌 먼 다발을 통을 그냥 버린 적이 있는데, 영상을 보니 다시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분리수거를 잘해야겠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심각성이 얼마나인지 알게 되어서 놀랐다. 그리고 사실 종이 휴지는 그냥 같이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류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실 분리수거를 해야하는 종이면 그냥 버려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 했다. 그리고 이제 체험교실 참가를 통해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기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체험교실 참가를 하지 않고 분리배출 에 중요성을 몰랐더라면 10년 후 우리 모습은 상상하곤 싶다.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확실히 예의 마음을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분리배출 체험교실 참가를 통해 우리집은 굉장히 많이 바뀌 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면 엄마게 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설명 하나, 엄마게도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아차라지 쓰레기통 없이 종이 종이때론 분류하는 것은 좋아해서 마음이 살짝 놓였다. 그리고 엄마게도 또다른 노력은 하는데, 버려야 하는 것도 먼저 분리 쓰레기를 전박하도록 이 땅에서 분리수거하는 아파트에 있는 곳에</p>		

전부 버리고 배안이를 깨끗이 비운뒤 그곳을 방으로 채우었다.
나도 처음에는 엄마께서 방을 많이 놓아주시길 보고 '왜그러시
지?'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엄마께서 그곳에 좀나 아직으로 플라
스틱 종이 유리를 쓰시길 보고 '아! 흰색이 좋은 만드나라!' 라고 개
달였다. 그리고 내가 엄마께 유리병 맥주병 소주병들이 마트에서 가면
130원 많지는 350원 정도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은 드리니까
그런데의 유리병을 마트에서 환불은 받았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안에
비닐이나 종이팩류가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엄마께서 인도네시아 생
각하셔서 내게 그 쓰레기통을 내주고 처음부터 하지만 남으라고 하셨다.
그런 악취도냄새 대한사를 보았는지 버려야할 액체도물을 직접
마트에서 버리게도 하셨다. 원래도 분리배출이 힘들었던데다 심각함은
말도 안되는 우리 힘줄로이로 그냥 풀기에는 힘이주자라도 그냥지
나가는 법이 없으신것같았다. 또 냄비 책상 옆에 쓰레기통은 놓아서
많이쓰는 비닐이나 종이들을 각각 넣을 수 있도록 구비해 주었다. 내가 책을 읽
고 우리 가족쓰는 산비닐이 1kg이인걸 안데드레네 가 화들짝 놀라시
며 오늘 저녁 장물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겠다 하셨다. 그리고 나는
재활용품으로 장난감 책을 많이 보셨다 다짐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일
해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바꾸려부 오만투기가 어려워서 아직 긴
행중이다. 그리고 박스책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모두다. 재활용해
서 만들었다. 그리고 한에는 그렇게 큰 노력은 아니지만 휴지와
비닐을 분류하고 종이팩은 종이통에 담자하는 것만이다. 나들이할때
휴지 제형 포일참자를 통해 아버지는 분리배출이 중요성으로만' 이리해서
노력하고 재활용품 만들기 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다. 장바구니사용
그리고 무대포일 카리양기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그리고 찬물과
물, 장난감 나누산기다, 마지막으로 가전제품이 많아져도

수리를 해서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우리들이 나오면 자유
 활동에서 권장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권장도 배양과에 꼭 포함시키려고 단계를 단계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를 바꾸는 안
 번리버튼은 잘라야겠다고 생각했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인)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제인) 초등학교 (6) 학년 (1) 반	이름 : (문혜은)
제 목	활한 자원을 만드는 분리배출	
<p>은 '지구를 살리는 올바른 분리배출'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p>		
<p>첫번째로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는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이 1인당 평균 1kg에 이른다는 것을 듣고</p>		
<p>조금 충격적이었다. 특히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다시 생각을 해</p>		
<p>보았는데, 그새 쓰레기를 많이 버린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지구를 살</p>		
<p>리는 공범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리고 나는 비닐을 잘 쓰는 편</p>		
<p>인데, 중간에 폴란드가 있나 어떤 나라의 국민들은 1년에 평균 4개</p>		
<p>의 비닐을 버린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안락적이었다. 이 이야기가</p>		
<p>나올때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놀란 것 같았다. 그런 후라루 브시고</p>		
<p>선생님이 '폴란드에서 1년에 평균 4개의 비닐을 버리는 것을 듣고</p>		
<p>놀라는 것보다 평소에 비닐을 많이 쓰지 않았나' 라고 하신 것</p>		
<p>도 굉장히 놀랐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는 놀란 일인데</p>		
<p>어떤 나라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 것과, 국민의 의식이 존중스러울</p>		
<p>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 어떤 3학년 아이가 말해</p>		
<p>줬다는 " 다들 조금만 불편하면 의논에 그걸 하지 않네요." "</p>		
<p>정말 기억은 안나지만 이런 쪽이었던 것 같다. 이 말도 인상 깊었다.</p>		
<p>또,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보았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먼</p>		
<p>볼 것 같아 바다 동물들에게는 화살 같은 존재라' 하시면서 코에</p>		
<p>나무? 같은 것이 기록이 코에 박히 파가 흐르는 것을 보고 미안해서</p>		
<p>시작했다. 그 후 몇개의 새를 더 보아 주었는데 몸에 온통 쓰레기가 차</p>		
<p>서 죽은 새를 사육으로, 몸에 플라스틱 병뚜껑이 끼어 그쪽만 사라</p>		

지 않은 거북이 등등 이상했던 조가 없는데 너무 안쓰러웠다.

그 후 시간부터 분리배출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분리 배출만 잘해도 쓰레기가 훌륭한 자원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공회생피 잘 들어보니 우유팩이 두루마리 휴지로 탄생하고, 빈병같은 것은 다시 유리병이나 식기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분리배출만 잘하면 새 물건이 된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그 후 분리배출 체험을 하였는데 평소에 잘 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소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예전에 잘못 분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를 배웠다.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이다. 이것들만 잘 지켜도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주에 분리배출은 내가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여러 쓰레기를 분리할 때 주의점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 부탄가스를 버려볼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탄가스를 버릴 때 꼭 구멍을 뚫은 뒤 배출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아서 이 수업을 받지 않았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매일, 소량을 대부분 하는데 이 방법 모두 환경에 좋지 않은 화자는 분리인이라는 것 같다. 환경을 지키려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추천해주었는데 각 분류별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셔서 한번 알아볼까 생각 중이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려면 지금 찾는 내용인데, 모든 물건은 단절하는 쓰레기가 드나간,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예전부터 '나 하나 풀어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그것을 간절하게
느꼈다. 나는 정말 분리배출이 간절하고,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자원은
만들는데 힘쓸 것이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김기 리옥 황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효천)초등학교 (5)학년 (2)반	이름 : (7준영)
제 목	분리배출 한번 해보자!	
<p>오늘은 학교에서 분리배출 수업을 가졌다. 나는 생태계와 자기관화에 대해 관심을가지고 있어서 매우 흥미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었다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1인당 양이 우유 5컵, 1kg 정도라고하셨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리배출은 1위지만 비닐, 일회용품 사용량도 1위라고 하셨다. 나는 우리나라가 분리배출을 잘해도 비닐과 일회용품 사용량 1위라서, 우리나라가 비닐과 일회용품을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다음에 커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양을 줄이는 건축사가 될거다. 내 말은 집에 아버지를 최대한 아끼는 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과 이물질이 남아있는데 버리면 오히려 재활용하지 못하고, 다 땅에 묻거나 태워야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선생님이 분리가 안되는 물건은 차라리 일반쓰레기에 버리라고 하셨다. 나는 골프공과 병을 분리배출 했는데 골프공이 조금 헛갈렸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친구들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았다. "골프공은 어디에 배출 해요?"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셨다. "이 골프공은 다시 사용하는게 제일 좋지만 더럽다면 일반쓰레기에 버려라. 왜냐하면 골프공은 흙과 다른 재료가 섞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깨달았다. 다른 재료와 섞여 있는 것들은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이제부터 집에 가져다도 꼭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거이다. 왜냐하면 나는 미세플라스틱이 섞인 해산물을 버기 싫기 때문이다. 선생님과 이제 필통을 만들었다. 그냥 종이로 만들었으면 별로 보람있지 않았을 텐데 재활용 종이로 필통을 만들어서 더 보람찬건 것 같다. 필통 만들기는 의외로 쉬웠다.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p>		

이 필통처럼 잘 재활용 되도록' 물건들을 잘 분리배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여기서 닥터스트레이저의 분리배출 영상을 보았는데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비워야하고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음식은 닦거나 헹구준다 또 라벨이
 다른 재질일 경우는 분리하고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별해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것까지 총
 4단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이 4단계를 꼭 지키는 착한 어린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재활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오늘 배운 재활용 방법을 아버에게 알려주고, 실천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의 꿈은 건축사였는데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는 커서
 쓰레기와 석유, 전기 등을 적게 배출하는 집을 설계하고 싶다고 느꼈다.
 나는 이 수업을 절대 잊지 않고 분리배출을 정확히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구조명이 될 거라고 다짐한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이원지	이원지
-------------------------	---------	-----	-----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장려상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서울가화)초등학교 (6)학년 (2)반	이름 : (최윤서)
제 목	어려서 생각!	
<p>나는 분리배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고 나서 많이 깨닫고, 아쉽고, 후회가 되었다. 먼저 분리배출</p> <p>하백삼 까지 바위 행기 분리하기 분리사항에 버리기이다.</p> <p>난 평소에 4가지를 다 지키는 못했던 것 같아서</p> <p>이제는 꼭 잘 지키는 것이라도 다짐하고 오늘부터 실천할</p> <p>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던 <u>회용품</u></p> <p>사용 줄이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너무 줄이기가 힘들다. 또</p> <p>내가 좋아하는 그자, 생선감 등 원만한 것은 <u>고대필생</u>이 되어</p> <p>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서 후회가</p> <p>된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u>고대필생</u> 제품을 조금 피하는 것이</p> <p>좋을 것 같다. 또 내가 사고싶고 꼭 필요없는 데 사는 행동도</p> <p><u>쓰레기</u>를 늘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도록 해주었다. 이것들</p> <p>말고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p> <p>버린 <u>쓰레기</u>를 작은 줄기가 되고 자분줄기를 다른 줄기가 되고</p> <p>큰줄기가 줄기들을 먹고 <u>나무</u>에는 우리의 배양에 생선으로 하는</p> <p>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u>쓰레기</u>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다는</p> <p>생각이 들게 되었다. 앞으로 이 교육을 다른데에서도 하고</p> <p>우리나라의 <u>쓰레기</u>가 많이 줄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p> <p><u>쓰레기</u>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정말 많고 어렵기도 하지만</p> <p>계속 줄이다가 습관이 된다면 <u>포기</u>하시고 점차 습관</p> <p>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리배출 체험교실 감사함. 열심히</p>		

설명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계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가정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이동경

(인)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대전 유천) 초등학교 (6) 학년 (3) 반	이름 : (조서연)
제 목	- 새롭게 다시 알게 된 분리배출!! 😊	
<p>나는 오랜 학교에서 분리배출에 대해서 배웠다. 처음에는 분리배출을 내가 잘 안 알고 있고 생각</p>		
<p>있었는데, 여기서 배웠으니 내가 몰랐던 내용을 다시 알게 되었고, 틀린 부분도 바로잡아서 조금이라도 분리배출</p>		
<p>이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나는 관리를 쓰레기를 아무 생각없이 버린 적이 많았는데</p>		
<p>내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들이 말려서 바닷속에 있는 거북이, 새, 물고기들에게 피해를 준다는</p>		
<p>것을 안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p>		
<p>'버린 쓰레기들이 이렇게 큰 양행의 기린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버린 쓰레기</p>		
<p>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많은 거북이들과 바닷속의 생물들은 정말 안고려된다. 사람들은 이런</p>		
<p>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바닷속 생물들을 대해서 잘 모른다고 빨리 다른사람들이 이런 일을 알고 쓰레기를</p>		
<p>잘 버리고 많이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제일 싫었던 것은 바닷속의 거북이이다.</p>		
<p>거북이는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쳐야 하는데, 쓰레기에 등껍질과 몸이 걸려서 정말 아파보였다. 나는 글이된</p>		
<p>진짜로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있는 심플로 세면대까지 뿌려 장난감 친구들이 있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이</p>		
<p>꼭 내려서 바닷속에 있는 플라스틱들이 '자신이 만든' 먹이를 안 먹고, 또 그 플라스틱은 물고기들이 먹게 된다.</p>		
<p>그 플라스틱은 또 우리가 손질하거나 모래에 먹는 것이다. 쓰레기는 줄고 줄어서 결국 나 자신한테 오는 것을</p>		
<p>알고 알 나는 그 일을 많이 환상했다. 내가 잘 안 알고 있던 생각하면 분리배출도 틀린 것이</p>		
<p>있었다. 나는 평소 식당에서 쿠폰 먹으면 다 먹지 않고 남는 지르곤 했는데 그런 것도 큰 생각하</p>		
<p>는들이 쓰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행동을 요즘 내가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행동을 버릴 때는</p>		
<p>항상 깨끗이 안 씻어서 마트나, 편의점에 나기도 마음 먹었다. 이런 작은 일로도 쓰레기를 줄일 수</p>		
<p>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p>		
<p>나는 평소 쓰레기 봉이랑은 쓰레기를 모아 매립해두는 것은 물속에 말려서 흙탕물도 하고, 걱정이 된다.</p>		
<p>우리가 조금만 쓰레기를 절약해도 쓰레기를 조금은 절약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p>		
<p>원래부터 우리가 잘 못 버린 쓰레기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나쁜 일도 알고 잘 분리배출 해</p>		

쓰레기를 절약하려면 중요하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육진주 (인)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수명)초등학교 (4)학년 (3)반	이름 : (장형욱)
제 목	분리 배출 체험교실	
나는 오늘 분리 배출 체험교실을 했다 분리 배출		
을 알기는 했는데 이렇게 배출이 중요한지는		
몰랐다 따로 출제된점은 따로 배출하는걸		
처음 배웠다 원래에는 따로 배출하는건지 몰라서		
막 버렸는데 따로 버리는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지만 이제는 배출을 할때에는 잘배출 할것이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일때에는 북극곰, 펭귄을 붙였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북극곰이		
많이 죽고있다고 뉴스에서 들어서 북극곰스티커를		
붙였고 펭귄은 왜 붙였어야면 남극도 이제 녹고있어서		
붙였다 사람들은 나중이고 기계들이란 기계들이		
다 켜녕게나 쓰고 불이나 물이 안잠겨져 있을때		
그리고 안타는게 마음에 걸린다. 나는		
전기들은 끄고싶어도 깜빡해서 못끈다 하지만		
이 수업이후 꼭 전기를 아끼고 쓰레기도 꼭 분리		
배출 할것이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	---------	---

공모자	대전태평초등학교 4학년 (3)반	이름 : 강주원
제 목	유익하고 재미있는 분리배출 수업	
<p>나는 처음에 선생님께서 우리가 분리배출 수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분리배출이 뭐라고 수업을 받아? 라고 그 수업이 재미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 분리배출 수업을 하러 가게 되었다.</p> <p>시청각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두 분이 계시었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한 분이 수업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막상 수업이 시작되니 수업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던 분리배출 수업이 재미없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열심히 듣게 되었다.</p> <p>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분리배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셨다. 보통 사람들은 분리배출을 분리수거라고 많이 말하지만 우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배출하는 것이므로 분리배출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다음 분리배출의 중요성,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 여러 곳에 생긴 쓰레기 섬들 등 분리배출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다. 교시는 정말 유익했다.</p> <p>2교시는 만들기를 했다. 무엇을 만들지는 짐작이 안 갔지만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열심히 만들었다. 선생님께서 그것은 재사용 용기라고 하셨다. 종이를 재사용해 이런 것들도 만든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중간에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다 만들고 보니 멋진 재사용 용기 필통이 되었다. 만들기도 정말 재미있었다.</p> <p>이제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정말 푹 개비린 듯 했다. 오늘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재미없을 거라는 처음 생각과 달리 무척 재미있었고 지금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라는 사</p>		

심을 알게 되었다.

오늘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서 바다 생물들이 고통을 받
는다는 내용과 바다에 쓰레기 섬들이 있다는 등 쓰레기 때문에 생긴 문제
들에 대한 것들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비행분쇄(비우기, 텡구기, 분리하기, 석
치 압기)도 인상 깊었다. 그걸 꼭 지켜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려
주어서 조금이나마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른이 되서 태평
양에 있는 가장 큰 쓰레기 섬의 쓰레기를 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
으로 오늘 배운 것들 꼭 기억해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인)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대전석봉)초등학교 (6)학년 (1)반	이름 : (양세운)
제 목	지구를 살리자!!	
<p>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요한 생명체이다. 이 깨끗한 지구를 살릴려면 우리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구에 생명중 하나인 바다. 바다는 여러가지 물고기들과 다양한 해산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나 비닐 등 여러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 바다도 오염되고 물고기도 해산류도 살: 공간이 없어서 거의 다 죽어가는 물고기들만 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을 하면 지구도 아프지 않고 살수있다. 지구를 살릴수있는 첫번째는 TV 뉴스나 라디오로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오염된 내용을 듣고 쓰레기 <u>분리수거</u>하거나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지구를 살릴수있는 두번째는 길거리에 쓰레기 가 버려져 있으면 바로 줍고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하고 또 길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려 않고 죽어거나 가방속에 넣어두고 집에있는 휴지통이나 공원에 분리수거장, 버스 정류장 쓰레기 통에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지구를 살릴수 있는 세번째는 패트병의 비닐 캡데기 에 세모 표시가 있으면 그 세모 안에 표시를 보고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패트병에 있는 비닐은 데에서 버리고 플라스틱은 반드시 세그려 서 버린다. 그리고 쓰레기는 우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동식물 등한테도 피해를 준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그걸 새들이나 다른 동물이 먹어서 많이 아프고 분변이 아니라 심지어 죽어가는 동물이나 식물 새 등이 있다. 지구도 동식물도 우리 때문에 많이 아프고 하는 것이다.</p>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동식물 근처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일회용품은 잘 섞지 않아 우리
 토양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동식물, 자연 등이
 죽지 않도록 쓰레기를 적게 버리라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
 나 인터넷 사이트에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오염된다는
 글을 올린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적게 버리
 라는 캠페인을 실천해야 한다. 또 학교나 회사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지구를 살기려면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해야 한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김민영 김민영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개화) 초등학교 (6)학년 (2)반	이름 : (장은오)
제목	나는 분리배출의 ^씨 왕	
<p>분리배출은 전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만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다. 전부터나는 음류수를 먹고 그냥 플라스틱에 버렸지만 감사여있는 비닐은 한번도 따로 버린적이 없다. 정확히 몰리기도 하였고 조금은 귀찮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생각했다. 지금까지 버린 것들의 거의반도안되는 것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된다는것을 그리고 도시락을 먹고도 안에 내용물은 안 쓰고 버린적이 있었는데. 조금 썰리기도 하였다.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은 물에 떠돌다가 그런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니 버렸으니 다시 되돌아오는 건가?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말로만들던 쓰레기산 나는 그냥 큰산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10개? 정도가 싸인걸 말하는줄알았는데 그렇게 큰쓰레기산을 말한다는건줄 몰랐고 놀랐다. 우리집에는 일반쓰레기,비닐,플라스틱 이렇게 만 있는데 더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오야 종이컵쓰지마라고 해서 너무 귀찮았지만 이 수업을 듣고나니 큰소리로 "네!" 라고 대답할수 있게 되었다. 이젠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수있는 물도</p>		

들어오고 그것을 다시 깨끗한 물로 안들라니 들어오고,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생각해 내가 할수있는 것
은 항상 각이다.

J

위 작품은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이수진 (인)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10년)초등학교 (5)학년 (3)반	이름 : (송민경)
제 목	지구를 살리는 길이 나를 살리는 길	
<p> 많은 분리배출에 대해 배웠다. 원래 분리수거 인을 알았는데 분리수거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이고, 분리배출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는 동물들을 보고 내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지구의 환경을 악화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분리 배출 뿐만이 아니라 재활용도 중요하다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분리 배출은 잘 하지만 재활용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재활용을 하면 못 쓰는 물건들도 쓸 수 있게 되고, 지구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비닐봉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다니! 적어도 미국 보다는 아닐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쓴다고 한다. 나는 가족과 마트에 갈 때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많이 쓴다. 이제부터 적당히 부탁해서 비닐봉지 대신 가방을 쓰면 어떠냐고 여쭙고 볼 것이다. 나도 학교에서 분리배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캔은 캔류에, 종이는 종이류에 버렸다. 다 버리고 나서 정말 벅찼었다. 내가 지구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옆에 있는 물건들이 나중에는 헛바퀴 되고, 결국 쓰레기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내 옆에 있는 물건들이 쓰레기가 되어서 소각이 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면 안될 것이다. 또, 땅에 묻어진다면 토양 오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생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 생물들은 어찌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어찌하면 아예 집밖에 나가지 못할 지도 나는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어찌하면 이게 </p>		

나를 살릴지도 모른다. 우리가 버렸던 쓰레기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나는 수업을 하면서 분리배출 핵심 4가지도 배
 웠다. 첫째, 비운다!, 둘째, 행군다!, 셋째, 분리한다!, 넷째,
 섞지 않는다!, 이 4가지를 기억하고 분리배출에 이용해야 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먼저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 서야
 겠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서 지구를 살려야
 겠다. 우리의 자애 사는 어떤 생명체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이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알 스영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u>홍천</u>)초등학교 (<u>5</u>)학년 (<u>2</u>)반	이름 : (<u>이민준</u>)
제 목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우리가 분리배출은 잘하지만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 하나면 첫째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 것이고 둘째		
저로 다른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린다, 셋째 종류에 따라서 플라스틱류는 플라스틱류로, 캔은 캔류로 그리고		
여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류에 버린다, 넷째 속에 든 내용물은 버린다. 내용물이		
안에 있으면 분리수거를 못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통 만들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우리가 A4용지처럼 그린 종이는		
아니지만 A4용지등 집에서 버리는 A4용지를 모아서 필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필통은		
활용성이 좋아서 연필꽂이, 붓꽂이등 여러 가지의 유용하다. 모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쓰레기는 잘		
분리해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비닐 같은 일회용품은 되도록 쓰지 않아야겠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옷은		
헌옷 수거함에 잘 빨아서 넣어야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서 우리 주변에 석유로 만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석유로 만든 것 중에서는 나일론 의자로 만든 옷,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의 회로,		
플라스틱 의자, 플라스틱 책상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착재 길 바닥에 쓰레기 람부로 버리지 않기. 들재
분리수저 잘라기. 셋재 일회용품 조금 사용하기. 이다.
그리고 오늘 한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이연리

이(의)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효천)초등학교 (5)학년 (2)반	이름 : (김소민)
제 목	깨끗한 분리배출로 지구 지키기!	
<p>안녕하세요! 저는 효천초 5학년 김소민 이라고 합니다. 오늘 분리배출에 대해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분리배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전 분리배출의 뜻을 배우고, 선생님이 알려주신대로 분리배출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있는 것은 일반쓰레기인데, 모르고 다른 곳에 버려서 앞으로 더 잘 기억하고 분리배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물, 토양, 공기가 오염되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또 2교시때 한 필통 만들기!</p> <p>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종이가 많아요. 하지만 종이를 재사용해 필통을 만들고 나서 그냥 버린 종이들이 너무 아깝고 종이를 다시 재사용해 필통을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버릴려고 했던 종어로 필통도 만들고, 쓰레기도 줄이고 일석이조라고요! 분리배출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라고 느꼈어요.</p> <p>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릴때는 다시 재 사용할수 있는 물건인가, 내가 잘못 버리는건 아닐까, 깨끗이 씻어서 버릴까를 꼭 생각하며 버려야 겠어요. 더이상 지구가 오염되지 않게 오늘 배운 분리배출에 대해 가족들, 친구들한테 알려 줄 거예요. 종이는 종이류에, 캔은 캔류에, 비닐은 비닐류로 잘 분류해서 버리고 재활용품을 많이 쓸거예요. 쓰레기는 버리면 버릴수록</p>		

- 피해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잘못
 짓고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를 도와줄 거예요.

오늘 분리배출 하는 방법, 재활용품 만들기 등 많은 체험들
 을 하면서 지구를 지키게 되어서 즐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게 된다면 지구가 다시 원래대로 깨끗해질
 거예요. 저도 열심히 분리배출 할게요! 지구가 깨끗해진
 다는 생각으로요. 오늘 분리배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해 주셔서 지구를 지켜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구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요! 다른 아이들
 에게도 분리배출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모두 지구를 위해 파이팅!!!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이은지 (인)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효천)초등학교 (5)학년 (1)반	이름 : (고가연)
제 목	분리배출 체험교실 후기 Let's save the Earth!	
<p>분리배출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는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구가 오염되기 때문이다.</p> <p>분리배출 체험을 참가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p> <p>우선, 전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내보내는 쓰레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kg이라고 한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일회용품, 아무생각 없이 버리는 음식물 모두가 우리 지구를 오염시킬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제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참가하고 나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약속을 하였다. 일회용품, 음식물쓰레기, 꼭 필요한 물건만 사기 등 여러가지 약속을 하였다. 비록 지금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킬수 없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노력하면 지구 오염이 될 도지 않을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천해 나가야 겠다.</p> <p>또, 지구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땅과 물이 오염되어 환경문제와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폐탄, 미산화 등이 발생해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더 살아갈 텐데... 대부분의 쓰레기는 재활용을 할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심해진 약속에 따라 분리배출을 잘하면 훌륭한 자원이 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나도 얼마전 뉴스에서 일회용 물병을 분리배출 할때 스티커와 페트를 따로 분리하여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렸을때 서희 이모부께서 환경을 되게 좋아 하셨다. 그래서 이모부집에서</p>		

우유팩을 화분으로 사용하여 식물을 키웠다.

분리배출 핵심 4가지를 소개를 하겠다. 첫째, 용기 안에 담
 겨있는 내용물을 비운다. 둘째, 재활용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음식은 닦거나 헹궈준다. 셋째, 라벨 등이 다른 재질일 경우
 분리한다. 넷째,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에
 버린다.

이와 같이 분리배출 체험교실 수기한 후 많은 것을
 배웠다. 또, 지구를 위해서, 우리모두를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
 하자! 아자! 아자! 아자!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인)
-------------------------	---------	-----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제이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염세현)
제 목	쓰레기 분리배출은 중요하다	
<p>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여러 수업을 배울하는 쓰레기의 양은 하루에 1인당 1kg에 이른다고 했다. 이는 학생들만 약 30톤이 넘는 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등에 그 많은 쓰레기 중 많은 부분은 재활용과 재사용이 되지만, 여전히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구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마음대로 버리면 버릴수록 땅과 물이 오염되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쓰레기물을 분리배출하면 종이는 새 종이나 노트를 재탄생하고, 금속, 플라스틱은 철, 강판이나 재활용 캔으로 바뀌는 등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탄생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회용품이 많이 쓰다 그대로 버려져서 쓸 수 없는 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없어 졌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때 푸장 저가품을 사지 말아야 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장바구니를 이용하면 우리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분리배출도 중요하고 일회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반은 분리배출을 하는데 쓰레기를 다 버리려던 마음이 짹짹하게 분리배출을 하</p>		


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재^도이용^도 할수 있고, 우리가 정해진 약속에 따라 분리배출을 지^도는 깨끗한 자원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분리배출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인)

4. 공모양식(4-6학년 체험수기)

공모자	(<u>참샘</u>)초등학교 (<u>5</u>)학년 (<u>7</u>)반	이름 : (<u>하지운</u>)
제 목	환경을 위한 첫걸음, 분리배출 	
<p>이번에 학교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분리배출을 할 때에는 다 따로 따로 모아둔 것들만 맞는 쓰레기 통에 넣었지만, 직접 분리배출의 방법을 배우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p> <p>'분리배출'의 잘못된 표현은 '분리수거'이다. 보통 분리수거라고 하지만 '수거'는 걷어가는 입장, 우리는 내놓는 입장 이므로 분리배출이 맞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리수거를 해야 할까? 요즘에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그로인해 북극곰이 죽어가고, 몇몇 섬이 없어지는 등 지구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쓰레기를 만들고 아무데나 묻어 버리거나, 공장에서 좋지 않은 연기를 뿜어내는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 쓰레기문제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바다에 '쓰레기 섬'이 있고, 많은 바다생물이 쓰레기로 인해 죽거나, 일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길가, 화단 같은 곳에 마구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더이상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쓰레기화 오염된 불필요로 가득 차 버린 썩은 행성이</p>		



되고 말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분리배출의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용기 안의 내용물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재활용 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내용물이 묻어있는 용기는 헹구고 분리하여 버리고, 페트 병의 라벨처럼 재질이 다른 것은 서로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물티슈의 뚜껑 같은 서로 다른 종류끼리 섞지 않고 나누어서 버려야 한다. 또한, 종이는 코팅된 겉표지나 스프링은 떼어 버리고, 음료수 병은 깨끗하게 헹구어서 마트나 편의점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폐 형광등·폐 전지·폐 의약품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오히려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꼭 지정된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분리 배출을 할 때 제품의 포장에 재활용 표시를 보고 그것에 맞게 분리 배출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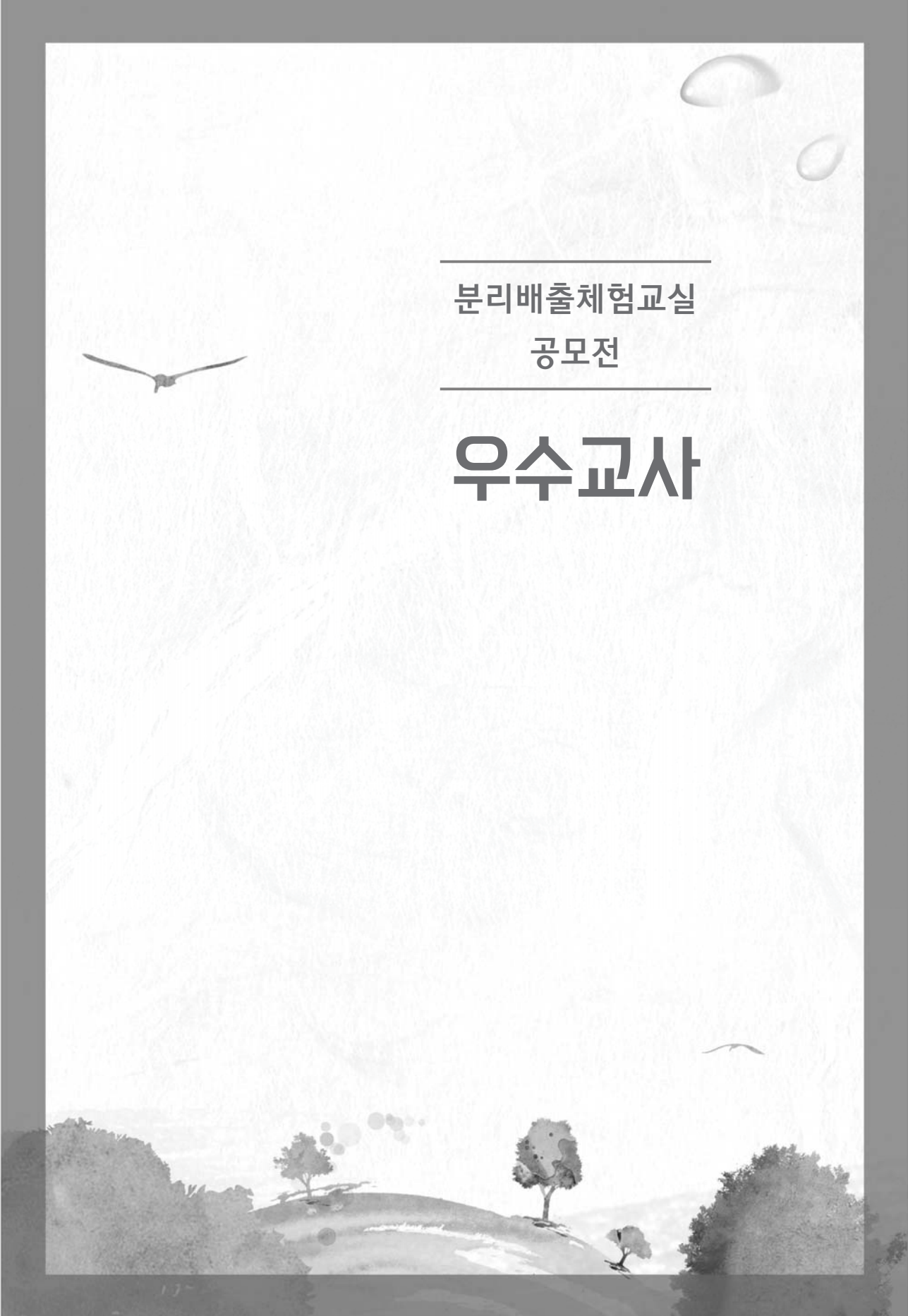
나는 지금까지 분리배출에 대하여 잘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더 꼼꼼히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분리배출의 올바른 방법을 잘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다. 책과 우리가 만든 필통도 평상시 쓰는 우유팩 같은 것을 재활용한 것이어서 더 의미 있었다. 배운 것 말고도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어 조사해 보았는데, 백백이(포장재)는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에, 아니라면 비닐류에 버려야

맞다. 그 후 직접 분리배출을 해 보았는데, 물엿 병을 씻고
 라벨을 떼니 접착제가 남았다. 잘 떨어지는 재질로 만들
 면 사람들이 더 많이 분리배출을 할 것 같았다. 내가 직접
 분리배출도 해보고, 더 크사에서 알고싶은 점을 알게 되어 뜻
 깊었다.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지구의 환경을 보호
 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조금씩이나마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도 앞으로 더 그럴 것이라 다짐하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멋진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작품을 분리배출 체험수기로 공모합니다.	담당교사 서명	김하영	김하영
-------------------------	---------	-----	-----



A watercolor illustration of a landscape. The background is a light, textured wash of grey and white. In the foreground, there are dark, rounded hills and several trees of varying sizes. A few birds are shown in flight, one on the left and one on the righ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re are two small, dark, oval shapes that look like raindrops or bubbles. The overall style is soft and artistic.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우수교사

⋮

분리배출체험교실 공모전

⋮

수상작



<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영 우수교사상 공모 >

대전유천초등학교 6학년 3반 담임교사 육진주

1.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영

가. 일시: 2018.10.02.(화) 3~4교시

나. 대상: 대전유천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

다. 내용: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재활용품DIY (필통 만들기) 체험

2. 분리배출 체험교실 신청 이유

현재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 지속가능발전, 인권, 평화, 문화다양성 존중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시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에 힘쓰고 있다. 특히, 요즈음 일 년 내내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각종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 받는 다양한 해양 생물 문제, 더욱 심해져가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특히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교육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이에,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실시하는 분리배출 체험교실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익혀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을 통해 지구 환경을 살리는 환경지킴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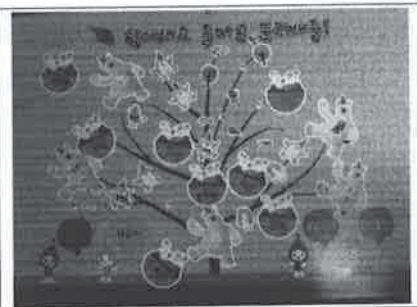
3. 분리배출 체험교실 활동 모습



강의를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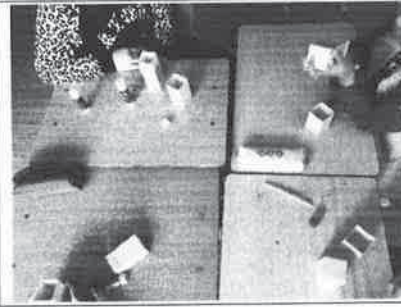
분리배출을 연습해요



올바른 분리배출을 다짐해요



재활용품으로 DIY 필통을 만들어요



신나는 분리배출 체험교실!

4. 교육 결과 (학생 소감)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을 정확히 배우고 나니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우유 같은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따로 분류하는 것, 플라스틱병은 라벨을 꼭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이었기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또한 유리병과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 마트나 슈퍼마켓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재사용을 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생활에서 꼭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먹다 남은 의약품 등은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넣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5. 기타 분리배출 및 환경 교육 실천 사례

가. 자원순환시설 견학 (2018.5.1.)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원 순환시설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여 아이들과 함께 견학을 갔다. 이 견학을 통하여 아이들은 우리 동네의 쓰레기를 언제 수거해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종류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과 수거해 간 쓰레기들의 추후 처리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보니 무척 넓게 펼쳐진 매립장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곳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

나. 물은 생명이다 (2018.5.29.)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의 특강 중 '물은 생명이다'를 신청하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물 사용량과 물이 부족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물 사용량을 비교해 보니, 정말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구마을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물 부족 문제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을 다짐해보도록 하였다.



물은 생명이다

다. 책으로 배우기 - 지구는 왜 점점 더워질까?,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읽어준 책 중에 하나인 「지구는 왜 점점 더워질까?」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음에 답하는 책이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어린이의 시각에서 쓴 일기와 보고서를 통해 조금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흥미를 끌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라는 책도 앞부분을 읽어주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 뒤 교실에 비치하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한겨울 씨, 여름 여사, 봄이 이렇게 일명 계절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대기 환경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봄을 맞아 꽃놀이할 생각에 들뜨지만 누런 황사와 미세먼지로 숨 쉬기마저 힘들어진다. 봄이는 이런 황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몽골 출장에서 돌아온 엄마가 선물로 준 낙타 인형 낙낙이가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봄이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준다. 사막화로 인한 황사 문제와 물질과 함께 생겨났기에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전 세계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온실효과 및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알려 주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라. 다큐멘터리로 배우기 - No Impact Man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남기 1년 프로젝트’인 「No Impact Man」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다. 주인공은 어느 날 환경 위기에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1년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실험해보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실천한다. 일회용품, 교통수단을 거부하고 전기까지 끊어버린 주인공의 삶은 너무나 극단적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끝에 대안을 찾아가며 서서히 삶의 방향을 잡아나간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행동을 인상 깊어 했을까? 형광등을 끄고 촛불을 사용한 것,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산 것,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 샴푸를 직접 만드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가 먹게 한 것, 우리가 배웠던 적정기술을 활용한 것 등을 인상 깊어했다.

마. 윤리적 소비

‘No Impact Man’ 과 관련하여 윤리적 소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소비를 하며 살아간다. 소비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지구의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호의 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일과 관련된 윤리적 소비 행동을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에는 적은 학습지를 모듬원끼리 돌려가며 보았다. 그리고 친구의 일상생활의 그 행동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를 생각하여 적어보기로 했다.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윤리적 소비 행동으로는 신제품이 나왔다는 이유로 자주 바꾸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것이 있었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자주 충전을 해야 해서 전기를 낭비하므로 적당히 쓰기도 있었다. 또한 공부하기와 관련해서는 학용품 아껴 쓰기가 있었고, 씻는 일에서는 물이나 샴푸 아껴 쓰기, 잠잘 때는 전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형광등 다 끄고 자기 등이 있었다.

바. 투발루는 지금 & 환경 도미노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는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해수면 상승이 빨라졌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과 2002년 3월에 발생한 거대 폭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섬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 또한 바다의 쓰레기가 남태평양을 통해 투발루로 유입되어 쓰레기 섬이 되어 가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 환경 문제는 하나의 상황에 각각 한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원인과 그에 수반되는 결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 만들어진다. 이에 우리의 행동과 이러한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가 쓰러지면 모든 조각이 쓰러지는 도미노 게임 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환경 도미노 활동을 구상해 보았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수돗물을 팔팔 틀어놓고 샤워한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아주 낮은 온도로 틀어놓는다,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고 쉽게 버린다 등의 행동이 쓰인 도미노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모둠원끼리 대화를 통해 도미노의 빈 칸에 작성하도록 했다. 이 때에, 작은 결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확장해 나가게 독려했다. 작성된 도미노들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쪽 늘어놓고, 다른 원인 행동과 연결할 때에는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식물들의 도미노를 놓은 후, 모든 도미노들이 연결이 되면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을 툭 쳐서 무너뜨려 보도록 했다.

와르르 무너지는 도미노를 보며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되어 점점 무너져가는 도미노를 보니, 나의 작은 행동이 지구 전체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어 지구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 슬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지구를 위한 작은 노력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사. Earth Hour

「Earth Hour」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자연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의 Earth

Hour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등 지구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한 환경운동 캠페인이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다. 이러한 지구를 지키는 시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 내용을 교육하고 교실 뒤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범시민운동 포스터도 게시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전등을 소등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생각하고 지구를 위한 일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보기로 하였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아. School Hour 캠페인

학교를 둘러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많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교실에 환하게 형광등이 켜 있는 모습, 물을 팔팔 틀어놓은 채 양치질을 하는 모습, 분리배출 창고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쓰레기들.

지구를 살리는 시간 「Earth Hour」에서 영감을 받아 학교를 살리는 시간 「School Hour」 캠페인을 실시하여 우리 학교의 많은 친구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우리 반 전체 토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물 절약, 분리배출 철저의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 뒤 모둠별로 주제를 선택하고 세부 내용을 토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내용을 포스터로 꾸몄다.



주제와 알맞은 장소에 게시하여 알리기로 했다. 분리배출과 관련된 내용은 분리배출 창고에, 물 절약과 관련된 내용은 화장실에, 에너지 절약은 형광등 스위치가 있는 곳에 게시하여 실천을 독려했다.

자. 잔반 ZERO 캠페인

매일 매일 급식실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에 학교에서 학기별로 실시하는 잔반 없는 주간 행사와는 별도로 우리 반 자체적으로

바다 동물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다 생물의 아픔 뿐 아니라 요즘 각종 플라스틱 제품 때문에 생태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무심코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이 다시금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무심코 많이 쓰는 비닐봉지의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물건을 사러갈 때 쓸 수 있는 천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패브릭 마카와 패브릭 크레파스 등을 활용하여 색칠도 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림도 그려서 멋진 가방을 제작했다. 우리가 시장이나 문구점 등에 갈 때만이라도 비닐봉지를 덜 사용한다면, 다양한 지구 생물들의 아픔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곁에 두고 자주 사용하기로 하였다.

타. 우리 학교 환경 정화

우리 학교에서 환경이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정화 활동을 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는 울타리가 없는 부분이 있고, 정자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정자 주변의 화단까지 많이 더럽혀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손길로 깨끗해진 학교의 모습을 보니 우리 마음까지 깨끗해졌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서 늘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6. 마치며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해 오고 있다. 3~4월에는 분리수거함에 아이들이 분리배출을 잘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려서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 스스로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쓰레기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들고 와 확인하여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더운 여름에는 북극곰을 생각하며 오전 1~2시간만이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참기도 했다. 그리고 특별실로 이동을 할 때에 교실 형광등이 잘 꺼졌는지 한 번 확인을 하고, 양치질을 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서 양치를 한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은 너무 소소하여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작은 손길이 모여 커다란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우리 지구가 조금씩 치유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오늘도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육하고자 한다.